

“한국인과 아시아인” 그 간극을 넘어

임은경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를 하다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종종 마주하고는 한다. 지금이야 함께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공부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서로가 너무도 낯설었다. 특히 마냥 나와는 먼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던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을, 텔레비전이 아닌 실제로 부대끼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거리감은 더욱 컸다. 이제껏 가르쳤던 아이들과 같은 학생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응대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 같은 막연한 의무감도 이어색함에 한 몫 했다. 이에 나도 모르게 다른 한국 아이들보다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의 맞춤법을 더 세세히 짚어주거나, 하다못해 간식을 사주더라도 매운 떡볶이 대신 피자를 사 들고 가는 등 어떠한 편견의 테두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놀랐던 것은, 바로 이런 내 무지한 배려와 태도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했다는 점이었다. 배려든 놀림이든, 나 뿐 아니라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시선들은 이미 이 친구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전제를 확고히 두고 있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나 또한 이들을 대할 때 이전의 교육봉사 경험을 살리기보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왔던 국제자원 현장에서의 태도에 차라리 가까웠으니 말이다.

이러한 태도를 버린 후에야 나는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즉 외양이나 생활습관 등이 얼마나 한국적이냐에 따라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폭력적인 시선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후에는, 자연스레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융화되기란 녹록치 않아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겪는 고충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출신과 내밀하게 얽힐 수밖에 없었다.

우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어머니로 인해 제 때, 적정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자연히 학습을 쫓아가는데도 큰 어려움을 보이곤 한다. 또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잦아 학습적으로 어머니의 부족한 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하나같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털어놓는 고충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소통의 단절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또래에게서 놀림 받기 일쑤인 아이들은 매사 소극적으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개 중 한 친구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이주여성임을 부정하기도 하였다. 꾸준히 설득과 대화를 시도한 끝에 들을 수 있던 본심은 새삼 충격적이었다. 또래와는 다른 외모로 줄곧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에 짓눌려 있었으며, 이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신의 출신 탓이라 여기고 어머니마저 부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친구 뿐 아니라 다수의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굳건한 벽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선을 넘어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곤 한다.

그럼에도 각종 매체에서 다문화 가정이 소개 될 때는 그 깊이가 너무도 뚜렷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본다면, 이들이 소개하는 다문화가정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백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첫 번째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두 번째이다. 사회적 문제로서의 다문화가정으로 낙인찍을 때는 절대다수가 후자를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장 활발히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러브 인 아시아>이다. 이 프로그램은 꾸준한 시청률과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장수프로그램이기도 하며,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미치는 파급력 또한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문제를, 이 프로그램은 적합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러브 인 아시아>가 우리 사회의 다문화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매매혼으로 인해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자와 약자인 여자의 결합이라는 점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매매혼을 포장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권력구조를 은폐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실 남녀평등이나 매매혼 같은 일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왜 서로가 매매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전 지구적 배경은 비춰주지 않는다. 그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탄생한 다문화가정의 단편적인 모습만 담아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러브 인 아시아>가 말하는 아시아의 범위는 기실 주로 매매혼이 이루어지는 후진국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까지 출현한 이주여성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한국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극빈국 출신들이다. <러브 인 유럽>, <러브 인 아메리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선진국인 한국을 전제해야 <러브 인 아시아>가 구성될 수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러브 인 아시아>가 전제하는 단단한 권력관계가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폐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전체 구성 중 약 오분의 일만이 이주 여성들의 쉽지 않은 한국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외국인 며느리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결코 이들이 처한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또 이주여성들이 낯선 타국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방송을 위해 단순히 소모적인 에피소드나 소재로 활용할 뿐이다. 겉으로는 친절한 후원의 제스처를 보여주지만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에 경청하지 않고 그들을 교정하려 한다. 얼마나 한국적이냐에 따라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주여성이 자신의 고향 음식을 함께 해서 나누어 먹는 장면보다,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한국사람 다 되었다는 한 마디 평가를 받는 장면이 훨씬 더 미덕으로 비춰지곤 한다. 이는 오히려 한국적인 관습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시인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을 바탕으로 문화와 인종을 구분 짓고, 결국엔 자신의 입맛에 맞춰 주는 이들만이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선택적 다문화주의가 이 프로그램 전반에 짙게 깔려있다. 따라서 국민통합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방송이 이러한 거부감과 갈등을 숨기는 도구로 다문화주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지만 사실은 더 큰 단일주의가 확고하게 전제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또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나마 드러날 수 있었던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해결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단발성 이벤트로 무마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제작진의 호의로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 회포를 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역시 이주여성의 가족들이 처한 현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적인 재회만을 강조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뭉뚱그려 버린다.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꺼지고 난 후, 양쪽 모두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다시 고향은 기약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한국에 돌아온 이주여성은 한국 사람으로 편승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오로지 방송이 방영되는 순간까지만 찰나의 판타지로 봉합되고 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브 인 아시아>의 범주에는 조선족과 새터민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아시아에 속해있는 이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선택받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로, 나는 이미 앞서 여러 번 언급된 선택적 다문화주의를 꼽고 싶다.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경우 이들을 내려다보는 우월적 시선이 방송 속에 자리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방송은 이들에 대한 다문화주의를 인정한다. 반면에 새터민과 조선족이 다문화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동시에 너무나 한국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후원이 우리 자신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반면에 새터민과 조선족은 우리와 다르며 동시에 우리 자신이다. 이들에 대한 후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교정을 전제한다. 이들과의 관계는 잘 사는 친절한 한국과 못 사는 어리숙한 주변국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새터민과 조선족은 우리의 치부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형제 자매처럼 보이곤 한다.

따라서 <러브 인 아시아>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문화 가정을 조명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주의 안에 은폐된 단일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위 한국적인 관습과 잣대로 채를 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차이나는 존재들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영방송이 해야 할 국민통합기능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금 강조컨대,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를 값싼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일시적인 관심을 끌고 마는데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다. <러브 인 아시아>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지구적 차이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